

공공공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원**

〈目 次〉

- | | |
|------------------|-----------|
| I. 서론 | IV. 분석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

〈요 약〉

도시에서의 삶의 질은 단순히 주거와 이동의 문제를 넘어, 시민이 공유하는 공간과 그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도시화와 개인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 공간은 휴식과 여가의 장소일 뿐 아니라, 시민 간 반복적 마주침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적 신뢰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는 공공공간이 도시민의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수행하는 매개적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공간은 서울특별시의 '인구 1인당 공원 면적', '인구 1인당 도서관 면적', '인구 1인당 체육시설 면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와 행복은 서울서베이(2017)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공간 변수 가운데 인구 1인당 공원 면적은 도시민의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신뢰의 부분 매개효과 역시 인구 1인당 공원 면적에서만 확인되었다. 이는 보행, 휴식, 여가활동 등 다양한 일상적 활동이 비교적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 공공공간이 시민 간 접촉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이 신뢰의 축적을 통해 행복과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공공간 정책이 시설 면적의 확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공간 유형별 개방성, 접근성, 이용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도시민의 삶, 행복, 공공공간, 신뢰】

* 본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3A2A02089585).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jiwonkimpic@gmail.com)

논문접수일(2026.3.30), 수정일(2026.6.4), 게재확정일(2026.6.12)

I. 서론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 공간에 모이지 않더라도 사적 공간 안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일상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면적 연결의 확산이 곧 사회적 관계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Nowland et al.(2018)은 디지털 소통이 기존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의 통로로 기능할 때는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는 오히려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초연결 사회의 역설은 연결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적 재연결의 기반은 여전히 별도로 요구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류와 관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꺾임에 근거한 OECD 자료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OECD 평균 10%에 비해 한국은 20%로,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OECD, 2025). 또한 한국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따른 경제적·정책적·건강 관련 비용이 연간 6조 9,560억 원, 1인당 2,04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최영준 외, 2023).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문제가 단순한 외로움의 정서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지원 망의 약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정책 현장 역시 이러한 변화를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서울시는 2024년 ‘외로움 없는 서울’ 구상을 발표하며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주요 도시정책 의제로 제기하였고(서울특별시, 2024.10.21.), 정부도 2025년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대응’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청소년·청년, 중장년, 노년층을 포괄하는 범부처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김성아·강예은, 2025). 즉,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개인의 적응 실패나 관계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환경과 사회구조, 그리고 정책 개입이 함께 다루어야 할 공공적 과제가 되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도시의 공공공간(public space)이다. 공공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고, 머물고,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기반이다. 특히 자유로운 모임과 체류를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부여하는 등 도시민의 삶과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PPS, 2000/2008). 또한 공공공간은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기 때문에, 도시민이 일상에서 사회적 다양성과

공공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된다(고은정, 2018; Stanley et al., 2012; Swierad & Huang, 2018). 따라서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취약성이 현대 도시의 주요 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시 공적 장면 속으로 불러내고 연결하는 공간적 조건으로서 공공공간의 의미는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서울시의 정책 흐름은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단발적 관심이 아니라, 도시정책의 지속적 방향 속에서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2017년 전후 서울로 7017, 덕수궁 돌담길 개방, 문화비축기지 조성 등을 통해 보행과 체류, 문화적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공공공간을 확충하였고, 이를 ‘잘 생겼다! 서울 20’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시민에게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기반한 ‘보행일상권’ 전략 아래 수변 활력거점, 정원도시, 서울광장 재구조화, 서울야외도서관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은 공공공간 정책이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정비나 시설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체류, 휴식, 소통, 문화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기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정책적 흐름은 공공공간이 시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행복과 같은 주관적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학술적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공공공간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사회적 접촉을 촉진하고, 이러한 접촉의 반복이 사회적 연계와 공동체 감각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은정, 2018; 정현·전희정, 2018; Jennings & Bamkole, 2019; Kim & Yang, 2017; Maas et al., 2009; Rogers et al., 2011; Swierad & Huang, 2018). 이는 공공공간이 단순히 물리적 시설이나 여가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간 관계 형성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존 연구는 공공공간이 신뢰나 사회적 결속을 통해 건강 수준을 높이거나 정서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다는 논의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Jennings & Bamkole, 2019; Maas et al., 2009; Rogers et al., 2011; Swierad & Huang, 2018), 공공공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행복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매개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서, 공공공간을 포함한 도시환경 또는 근린환경의 질이 사회적 신뢰나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점차 축적되고 있다(Nicolás-Martínez et al., 2024; Hong et al., 2026).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체로 녹지, 안전, 보행환경 등 다양한 도시환경 요소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환경평가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 지역 수준에서 공급되는 물질적 공간자원의 효과를 충분히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개별 자원의 성격과 기능

적 차이를 충분히 유형화하지 못함으로써, 각 공간자원이 관계 형성과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2017)의 대규모 표본을 활용하여, 공공공간을 시민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과 같은 지역 수준의 객관적 자원으로 측정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물질적 공간자원의 차이가 도시민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그 과정에서 신뢰가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주관적 환경 인식에 기초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여, 공공공간의 유형별 특성과 실질적 공급 조건이 관계 형성과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도시정책과 행복 연구의 접점을 확장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는 시대에 공공공간 정책이 시민의 관계적 삶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행복

행복(happiness) 연구는 경제성장이 반드시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 제기된 이후, 철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폭넓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구교준 외, 2017). 예컨대, 경제적으로 풍족한 발전을 이룬 미국의 경우 “미국의 1인당 GNP는 1960년 이후 3배 성장했지만, 전반적인 행복 수준은 반세기 동안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Helliwell et al., 2012:4). 또한 세계 6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발전(GNP)과 행복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Inglehart & Klingemann(2000)의 연구에서는 1만 달러 전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 높아지지만, 그 이후에는 행복 수준이 거의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스털린 역설의 ‘평탄곡선(flat of the curve)’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이 더 이상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문진영, 2012).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책적 차원에서도 행복을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OECD의 Better Life Index와 NEF의 Happy Planet Index와 같은 대표적 지표 체계는 주관적 웰빙을 사회발전의 핵심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다, 호주, 이탈리아, 한국 등은 국가 및 도시 차원에서 행복 지표를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점차 반영하고 있다(이승준 외, 2021). 국내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고명철·최상옥, 2012), 대표적인 행복 지표 체계로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행복이 정책적 성과이자 학술적 분석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함에 따라,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검토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행복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30개국의 사전적 정의를 분석한 Oishi et al.(2013)은 행복이 문화와 시대를 통틀어 주로 “행운(good luck)”과 “호의적인 외부 조건”¹⁾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그 의미 또한 언어·문화·시대적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밝혔다(Oishi et al., 2013:559, 574). 이는 행복이 단일하고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온 개념임을 시사한다.

다만 행복의 의미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왔음에도, 행복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라는 문제로 수렴된다(Frey & Stutzer, 2002/2008). Tatarkiewicz(1966:1)은 행복을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하였으며, Chekola(1975:4)는 행복이 개인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감정 상태라기보다 장기적으로 귀속되는 삶의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Veenhoven(2001:4) 역시 행복이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다시 말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좋게 인식하는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현대적 이해는 행복을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인식에 관한 문제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고대 윤리학의 행복 논의와도 연결된다. 행복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고대 윤리학의 전통 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은 행복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하였다. 하나는 쾌락적 즐거움과 만족을 중시하는 “일시적으로 얻은 우연한 행복(Hedonism)”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삶으로서의 “일생 누리는 행복(Eudaimonism)”이다(Schildhammer, 2009/2014:54).

먼저, 쾌락주의적 행복관(hedonism)은 아리스티푸스와 에피쿠로스의 논의를 통해 체계화되었으며, 행복을 고통의 최소화와 쾌락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조태연 외,

1) “이러한 행복에 대한 접근은 점차 변화하다가 18세기 계몽주의 때 ‘외부에서 내부로(external to internal)’의 변화가 촉진되었다(McMahon, 2006: Oishi et al., 2013:560에서 재인용).” 미국의 경우에서도 1920년대 미디어의 광고들이 제품의 성량보다는 소비자들의 감정(웃음이나 활기참)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욕구’와 ‘자기표현’으로 관심이 변화했고 점차 행복에 대한 인식도 외부적 환경에서 개인의 내부적 심리 상태로 대체되었다(Oishi et al., 2013).

2014). 이러한 관점과 연결하여 Hsee et al.(2008:225)은 행복을 ‘쾌락적 경험(hedonic experience)’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행복의 극대화가 긍정적 경험의 증대뿐만 아니라 부정적 경험의 감소를 함께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행복을 쾌락적 경험에 기반한 정서적 상태로 이해하는 관점은 심리학에서 논의되어 온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나아가 쾌락을 통해 획득되는 효용을 행복과 동일시해 온 주류 경제학의 이론적 전제와도 연결된다(구교준 외, 2017).

반면, 자기실현적 행복관(eudaimonism)은 행복을 단순한 쾌락의 획득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덕성이 실현되는 삶의 상태로 이해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성이론(virtue theory)을 중심으로 발전한 관점으로, 용기, 관용, 정의, 절제 등 덕성의 발현을 행복의 핵심 조건으로 본다(조태연 외, 2014:262). 이후 자기실현적 행복관은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 실현에 주목하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자율성·역량·관계를 기본 심리욕구로 제시한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Deci & Ryan, 1985), 그리고 개인의 자원을 실제 삶의 기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주목한 Sen의 역량이론(capability theory)으로 확장되었다. 나아가 Nussbaum(2003)은 Sen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핵심 역량 목록을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쾌락주의적 행복관과 자기실현적 행복관은 대립적 관점이라기보다 행복의 정서적·경험적 차원과 능력 및 잠재력의 실현 차원을 각각 설명하는 상호보완적 관점으로 정립되어 왔다(Baumgardner & Crothers, 2009). 이러한 점에서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면서도, 그 평가를 형성하는 사회적·환경적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공공공간과 행복

1) 공공공간의 개념

공공공간은 도시공간 속에서 개방되어 있으며 공적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내 공적·집합적 활동을 촉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Stanley et al., 2012). 구체적으로 공공공간은 ‘공공성(publicness)’의 개념에 기반하여 이해될 수 있다. Nemeth & Schmidt(2011)는 공간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주요 축으로 관리(management), 소유권(ownership), 사용자(users)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즉, 공공성이 높을수록 공간의 관리는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며, 소유권은 공공 또는 정부에 귀속되고, 이용 방식과 이용자 구성은 보다 다양하고 집합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Nemeth & Schmidt, 2011).

이러한 공공공간의 개념은 국내 제도적 맥락에서도 비교적 폭넓게 설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 공간시설과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이에 포함되며, 「건축법」에서는 공개공지, 공개공간, 공공보행도로, 건축선 후퇴 공간 등도 공공공간의 범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공공공간이 전통적인 의미의 공원이나 광장뿐 아니라, 도시 내 일상적 이동과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보행 기반 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공공간의 범위가 넓게 설정되는 것은 공공공간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석(2016)은 현대 도시민이 사적 공간뿐 아니라 공공공간이나 공유공간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공공공간이 단순히 도시의 부가적 시설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임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Stanley et al.(2012)은 열린공간(Open space)²⁾에 관해 도시(City), 지역사회(Community), 주택(Residence) 단위에서 토지의 특성³⁾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공간의 종류와 유형을 제시하였다(〈표1〉 참조). Stanley et al.(2012)은 열린공간이 소득, 성별, 인종 등 사회경제적 차이를 넘어 주민들에게 비교적 제한 없이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표 1〉 열린공간의 종류와 유형

	시설	거리	광장	여가	잔여 공간	공원	식품
도시	항구, 공항, 기차역, 관공서 등	중앙도로	대형 광장	경기장, 녹지대, 해변	세미공공공간, 자연환경	대공원, 정원	과수원, 농장
지역 사회	교통 정류장,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도로사이의 공간	근린 광장	공터, 교통시설 경계지	스포츠시설, 운동장	시설부속공원, 기념공원, 소공원	목초지, 커뮤니티가든
주택	도로, 주차 공간	보행로, 좁은 길	야외 시설	정원, 놀이터	건물 사이의 공간	주택정원	텃밭, 원예

◁ Grey Space/Green Space ▷

출처: Stanley et al(2012); 정은주 외(2016)에서 재인용

2) Stanley et al.(2012)은 열린공간(Open space)과 공공공간(Public space)의 개념의 차이를 두고 인식하였다. Stanley et al.(2012)은 공공공간은 시민 기관이나 종교 건물 등 지붕으로 덮여 있어 밀폐된 제도적 성격을 띠는 공간들을 포함하지만, 열린공간은 밀폐된 공간이 없다고(not roofed) 설명하였다.

3) Grey space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불투수성의 경질 재료로 덮인 공간을 의미하는 반면, Green space는 흙, 잔디, 물, 나무 등 투수성과 자연적 속성을 지닌 요소로 구성된 공간을 의미한다(Stanley et al., 2012; 정은주 외, 2016:54에서 재인용).

그 밖에도, 공공공간은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Goodsell(2003)은 공공공간의 의미를 정치철학, 도시계획, 건축의 정치적 의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각 관점이 공공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2〉 참조).

첫 번째는 정치·철학적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공공공간은 개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의사소통의 장이며, 공개 담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는 공공영역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도시 공간과 민주적 실천이 결합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였다(Stanley et al., 2012).

두 번째는 도시계획적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공공공간은 물리적으로 개방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의 이용과 시민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즉, 도시계획적 접근은 공공공간을 도시민의 일상적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기반으로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도시적 삶(urban life)’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Goodsell(2003)은 길, 보행자 거리, 공원, 광장, 물, 해안선과 해변 등 다양한 공공공간이 도시민의 일상적 경험을 구성하며, 도시민의 웰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은 건축의 정치적 의미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공공공간은 건축과 디자인을 통해 정치적 권위, 제도적 질서, 집합적 상징이 표현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법원, 시청, 국회의사당과 같은 공적 건축물은 단순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넘어,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를 가시화하고 시민이 공적 권위와 제도를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Goodsell, 2003).

이상의 세 가지 관점 중 본 연구는 도시계획적 관점에 주목하여, 공공공간을 도시민의 웰빙과 일상적 삶의 질을 지원하는 공간적 기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시민들은 공공공간 안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사회적 유대와 지역사회의 연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다(Goodsell, 2003). 실제로 공공공간은 도시 거주민들의 사회적, 정치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Stanley et al., 2012), 정책적 측면에서도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조성 사업 등’의 사업 추진으로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정은주 외, 2016).

〈표 2〉 공공공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정치철학 및 민주주의	도시계획 및 설계	건축의 정치적 의미
대상	사회적 영역	도시부지	공적 건물
초점	공개 담론	도시 생활	사회적 의미
논의	소외, 정부의 지원	회복 혹은 대체	위협 혹은 식별

출처: Goodsell(2003:367)

2) 공공공간과 행복

이처럼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과 행복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특히 지역 환경이 주민의 주관적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공공시설과 공공공간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먼저, 공공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은 지역 내 다양한 기반 시설의 확충이 주민의 생활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안윤정, 2014; 이영빈·정창무, 2013; Benita et al., 2019; Samavati & Veenhoven, 2024). 예컨대 이영빈·정창무(2013)는 2006년과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기반시설 수가 증가할수록 지역주민의 행복 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의 확충이 행복 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Samavati & Veenhoven(2024)은 도시환경과 행복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면서, 문화·여가 시설 접근성, 의료서비스 접근성, 공공재 및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행복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음을 정리하였다.

한편, 공공공간 자체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보행만족도, 도심 내 공원 면적, 객관적인 녹지 공간 수준 등이 주요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 또한 상승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이우민 외, 2016; Mehdizadeh et al., 2025; Ratanawichit et al., 2025). 예컨대 Ratanawichit et al.(2025)은 근린의 보행가능성이 높을수록 여가 목적 보행이 증가하고, 이러한 여가보행이 더 높은 웰빙과 유의하게 연관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Mehdizadeh et al.(2025)는 보행에 대한 지각된 접근성이 삶의 만족을 직접적으로 높인다기보다는, 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도시 내 녹지와 공원 역시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공공공간 요소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우민 외, 2017; Benita et al., 2019; Kim & Yang, 2017; Patino et al., 2023). 이우민 외(2016)는 서울서베이 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환경 요인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행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공원면적과 녹지만족도 역시 행복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enita et al.(2019)은 싱가포르의 7세부터 18세까지 학생 19,831명을 대상으로 5일간 도시공간에서의 경험을 추적하며, 상업시설, 도로, 공공공간, 공원, 스포츠센터, 시민 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행복을 느끼는 횟수’를 종속변수로 한 실험연

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상업시설에 비해 공원과 시민 커뮤니티시설을 방문할 때 행복을 경험할 확률이 일관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 & Jin(2018)은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도심 내 공원 면적과 도시민의 행복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원 면적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공원 면적의 긍정적 효과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Patino et al.(2023)은 주거지 주변 녹지가 10% 증가할 경우, 개인이 높은 수준의 행복을 보고할 가능성이 13~18%가량 증가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녹지의 효과는 단순한 면적의 확대뿐 아니라 질적 수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종합하면, 공공시설과 공공공간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역 환경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시설의 존재 여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 이용 가능성, 활동 촉진 효과, 그리고 환경의 질적 수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신뢰와 행복

행복 연구에서 관계는 오랫동안 핵심적인 설명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관계적 차원을 설명하는 대표적 개념이 사회적 자본이며, 특히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행복과의 관련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Crowley & Walsh, 2024; Helliwell & Huang, 2008; Helliwell et al., 2020, 2021; Helliwell & Putnam, 2004).

예컨대, Helliwell & Huang(2008)은 16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관계적 요소로서 일반적 신뢰가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세계가치관조사와 미국 및 캐나다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 역시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Helliwell & Putnam(2004)의 연구에서도 세계가치관조사, 미국 벤치마크 조사, 캐나다 조사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 신뢰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독립적이고도 강건한 정(+)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신뢰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안녕에 여러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며, 가족·이웃·친구 관계, 시민참여 등이 모두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속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Helliwell et al.(2020)은 유럽 35개국을 대상으로 일반적 신뢰, 공공 기관 신뢰, 경찰 신뢰, 사회적 모임 참여, 친밀한 관계가 모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일반적 신뢰(0.23점), 공공 기관 신뢰(0.24점), 경찰 신뢰(0.30점)가 각각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이를 합하면 총 0.75점의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적 모임 참여 및 친밀한 관계 유지는 추가로 1점 이상의 삶의 만족도 상승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전환국(Transition Economies)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rowley & Walsh(2024)는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2016년 유럽의 전환국가 10개국에서 14,89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정부, 기관,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가족 및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적 자본이 제도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 행복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사회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비관용(intolerance), 불신(distrust), 불만족(dissatisfaction)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자본의 보호 효과는 개인이 직면하는 삶의 다양한 위험 요소에서도 두드러진다. Helliwell et al.(2020)은 총 35개국에서 약 37만 5천 명의 응답 데이터를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risks)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위험 요인에는 차별, 건강 악화, 실업, 저소득, 가족 지지 상실, 야간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위험 요소들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 신뢰, 공공기관 신뢰, 경찰 신뢰와 같은 요소들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 기제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일반적 신뢰가 높은 환경에서는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44% 완화되었으며, 건강 악화(34%), 실업(30%), 야간 안전 불안(72%) 등의 요인에서도 유사한 완충 효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불리한 상황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감소가 평균적으로 40%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가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 사회적 위기와 개인적 역경 속에서도 행복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는 신뢰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다양한 삶의 조건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매개 또는 완충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공공공간과 행복의 연결고리: 신뢰의 매개효과

1960년대 이후 대규모 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한 근대주의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공공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공공생활 연구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Gehl & Svarre, 2014). 특히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안 겔(Jan Gehl),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윌리엄 화이트(William H. Whyte) 등은 기존 도시계획이 도시민의 일상적 활동과 공공생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도시 내 공공생활의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Gehl & Svarre, 2014:47).

공공생활 연구의 초기 논의를 대표하는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1961년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 저서를 통해 모더니즘으로 인한 고속도로, 고층건물, 그리고 용도구역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용도복합(Mixed use)’,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정석, 2016:47에서 재인용).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결국 도시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행자 길에서 사람들의 감시와 통행이 거리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설명했다. Jacobs(1961/2010:111)는 “보도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은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무의미하고 우연으로 보일지라도 도시의 풍부한 공중 생활이 자라날 수 있는 작은 변화”라고 하면서 길은 이웃들 간의 일상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사회활동이 촉진되는 곳이라 강조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공공공간 연구와 실천을 확장해 온 비영리단체 PPS(2000/2008:13)⁵⁾는 “도시와 근린 지구가 바람직한 공공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강해지지만, 반대로 공공공간이 부족하면 주민들의 상호유대감은 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공간과 공공생활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표적 연구자인 Jan Gehl은 옥외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에 주목하였다. 그는 도시와 주거지역의 공공장소가 일상적 만남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타인의 활동을 관찰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뮐베른 보행자 거리에서 의자 수를 두 배로 확충한 결과, 의자에 앉아 이루어지는 옥외활동이 88% 증가하였고, 코펜하겐에서는 광장과 보행자 거리의 면적이 1968년에 비해 약 3배 확대되면서 거리에서 머무르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의 수도 함께 3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Gehl, 1971/2003). 이러한 논의는 공공공간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될수록 선택적·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자면, 1960년대 이후 초기 공공생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공공공간과

4) 공공생활은 “건물 밖에서 관찰되는 걷기, 앉기, 자전거 타기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공공간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Gehl & Svarre, 2014:2)”.

5) Fred Kent는 William H. Whyte의 ‘거리 생활 프로젝트(Street Life Project)’에 참여한 이후, 1975년 공공공간의 연구·계획·평가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Project for Public Spaces(PPS)를 설립하였다.

사회적 자본 간의 상관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Gehl, 1971/2003; Jacobs, 1961/2010; PPS, 2000/2008; Whyte, 1980). 한편, 최근엔 이러한 공공생활 초기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나 관찰 및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공간과 사회적 자본 및 신뢰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은정, 2018; 정현·전희정, 2018; Jennings & Bamkole, 2019; Kim & Yang, 2017; Maas et al., 2009; Rogers et al., 2011; Swierad & Huang, 2018). 예컨대 Maas et al.(2009)는 녹지와 건강 간의 관계를 사회적 접촉이 부분적으로 매개할 수 있음을 보였고, Rogers et al.(2011)은 보행 가능한 근린환경이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사회적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Swierad & Huang(2018)은 공원이 개인과 공동체, 자연 사이의 연결감을 촉진함으로써 건강과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경로를 탐색하였으며, Jennings & Bamkole(2019)는 도시 녹지가 사회적 결속과 사회자본을 증진시켜 건강과 정서적 웰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공공공간의 효과를 사회적 자본, 건강, 정서적 웰빙 차원에서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공공공간이 형성하는 관계적 자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행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공공공간이 신뢰나 사회적 결속을 통해 건강 수준을 높이거나 정서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다는 논의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으며(Jennings & Bamkole, 2019; Maas et al., 2009; Rogers et al., 2011; Swierad & Huang, 2018), 행복 수준 자체를 직접적인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한편, 최근에는 녹지 등을 포함한 도시환경이 사회적 신뢰나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실증연구가 점차 축적되고 있다. 예컨대 Nicolás-Martínez et al.(2024)는 유럽 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식된 도시환경의 질이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Hong et al.(2026)은 서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행환경, 녹지, 안전 등 근린환경의 질이 사회적 자본과 행복에 모두 정(+)적으로 관련되며, 그 효과가 특히 고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환경이 단순한 물리적 조건을 넘어 관계적·심리적 경로를 통해 행복에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행복 연구에서는 도시환경과 공동체 요인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뢰가 수행하는 매개적 역할에 주목해 왔다. 김재형·남태우(2021)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문화 환경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일반 신뢰와 공적 신뢰가 문화환경 만족도와 행복 간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 환경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타인 및 공공에 대한 신뢰 형성을 통해 행복을 증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송현성(2025)은 서울서베이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동과 행복 간 관계에서 일반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현대 도시사회에서 지역공동체 활동이 일반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행복과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공공공간과 사회자본, 건강, 정서적 웰빙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공공공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관계적 자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복과 연결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특히 다수의 연구는 공공공간이 사회적 접촉이나 결속을 통해 건강 수준 또는 정서적 웰빙과 관련될 수 있음을 논의해 왔으나, 공공공간의 물리적 공급 수준, 일반적 신뢰, 행복 간의 관계를 하나의 분석 틀 안에서 검토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공간과 행복 간의 관계를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공간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신뢰라는 관계적 자원이 행복과 어떠한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도시환경을 문화환경, 보행환경, 안전, 녹지, 도시 전반의 질과 같은 포괄적 개념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 공공공간 유형별 차이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공간을 공원, 공공도서관,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각 공간 유형이 신뢰 및 행복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비교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공공간이 동일한 방식으로 신뢰와 행복에 연결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컨대 공원은 개방성과 비목적적 체류 가능성이 높아 느슨한 사회적 접촉과 관련될 수 있는 반면, 도서관과 체육시설은 학습, 문화, 건강, 여가와 같은 기능적 편익을 통해 행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신뢰와 행복 간의 관련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를 보완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신뢰를 매개변수로 설정한다는 것은 공공공간과 행복 간의 관계가 오직 신뢰를 통해서만 설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공공간은 휴식, 신체활동, 정서적 회복, 환경 쾌적성, 여가 기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행복과 관련될 수 있으며, 신뢰는 그 가운데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간접경로로 이해된다. 특히 공원, 광장, 보행로와 같은 개방형 공공공간은 주민들이 특정한 친밀관계나 조직 참여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마주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공공질서와 상호 배려의 규범을 경험할 수 있는 생활세계의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낮은 강도의 반복적 접촉은 반드시 강한 유대나 직접적 교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타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공동체의 안전성과 질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반화된 신뢰와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매개모형은 공공공간과 행복 간의 관계를 신뢰로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이 행복과 연결되는 여러 경로 중 신뢰를 경유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관련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혼합가설. 공공공간은 신뢰를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공공공간 공급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공공공간 공급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신뢰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개인의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Ⅲ.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서울서베이 2017년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서울시에서 서울로7017, 덕수궁 돌담길 개방, 문화비축기지 조성 등 보행과 체류, 문화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공간 정책이 본격화되던 시점으로, 공공공간이 도시정책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던 서울의 맥락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정책적 중요성이 확대되던 시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물질적 공간자원의 차이가 도시민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그 과정에서 신뢰가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서베이’는 2003년부터 매년 20,000가구 및 가구원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사내용을 통해 서울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서울서베이 2017년 자료는 2017년 9월 한 달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000가구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 42,68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구 방문 면접조사 자료이다. 해당 조사는 인구와 가구, 경제, 주거와 생활, 교육과 보육,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등 12개 분야의 주요 지표와 가구조사 기본문항을 포함한다(서울특별시, 2018:4).

서울서베이 자료 외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공원현황 통계에서 제공하는 ‘1인당 공원면적 총계’ 자료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1인당 도서관 면적’,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통계를 통해 ‘1인당 체육시설 면적’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위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공공공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에는 첫째, 공공공간과

관련한 객관적인 변수를 확보하기 위함과 둘째, 자치구의 물리적인 환경 공간과 공공시설이 같은 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과 관련한 공원 면적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도서관 면적과 체육시설 면적 또한 시민 개인의 역량 및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써 인프라적 문화·여가 시설을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민 총 42,687명의 표본에서 19세 이상 성인의 직업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19세 미만 1,777명(원자료의 4.16%)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40,910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총 4회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 과정에서는 개인 수준 응답 자료와 자치구 수준의 공공공간·시설 변수를 결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동일 자치구에 속한 응답자들의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구 단위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절차에 따라 <그림 1>은 본 연구의 매개효과 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은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전통적인 회귀분석 기반의 4단계 절차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수식 (1)과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a).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총효과’라고 한다. 둘째, 수식 (2)와 같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b). 셋째, 수식 (3)과 같이 독립변수 없이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c). 마지막 단계로 수식 (4)와 같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도 각각 종속변수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때,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모델에 포함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a)’라고 하며, 첫 번째 단계의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총효과(a)’보다 작게 되면 부분 매개효과가 성립된다(이학식, 2012). 총효과(a)의 관계식은 직접효과(a)와 간접효과(b*c)의 합으로 구해지며, 이때 간접효과를 매개효과라고 한다(이학식, 2012). 이와 같은 행복 방정식을 수행한 뒤에는 최종적으로 신뢰의 매개효과 값이 유의한지 판단하기 위해 부스트랩 검정을 수행했다.

다만,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는 고전적 접근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

으나, 이후 방법론 문헌에서는 그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MacKinnon et al.(2002)은 여러 매개효과 검정 방법을 비교한 결과, Baron & Kenny(1986)의 인과단계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낮은 통계적 검정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Hayes(2009) 역시 이 방식이 간접효과 자체, 즉 경로계수의 곱($a \times b$)의 크기와 유의성을 직접 검정하기보다는 개별 구성 경로의 유의성에 근거하여 매개효과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Zhao et al.(2010)은 총효과와 유의성이 매개효과 판단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매개효과 분석의 핵심은 간접효과의 존재와 그 이론적 해석에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Baron & Kenny(1986)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변수 간 경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추가적으로 검정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표본분포를 반복 재표집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분포가 정규성을 따른다는 가정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와 부트스트래핑 기반 신뢰구간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공공공간 및 관련 시설이 신뢰를 통해 행복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판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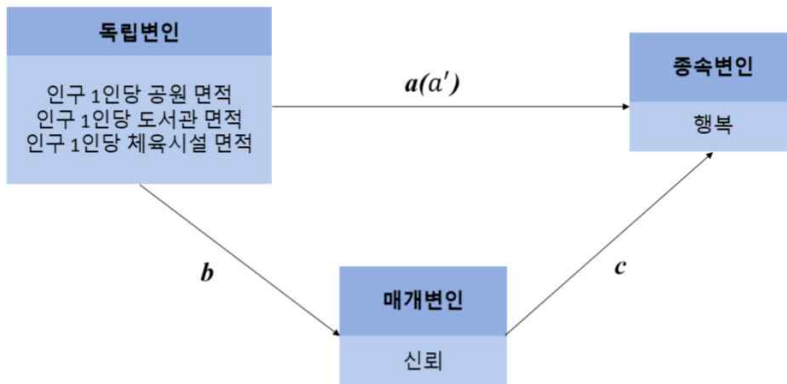
$$Happiness = a_0 + a_1 ParkArea + a_2 LibraryArea + a_3 SportsArea + a_i \sum X_i + \epsilon_1 \quad (1)$$

$$Trust = b_0 + b_1 ParkArea + b_2 LibraryArea + b_3 SportsArea + b_i \sum X_i + \epsilon_2 \quad (2)$$

$$Happiness = \gamma_0 + \gamma_1 Trust + \gamma_i \sum X_i + \epsilon_3 \quad (3)$$

$$Happiness = \delta_0 + \delta_1 ParkArea + \delta_2 LibraryArea + \delta_3 SportsArea + \delta_4 Trust + \delta_i \sum X_i + \epsilon_4 \quad (4)$$

〈그림 1〉 연구 모형



3. 변수측정

1) 종속변수: 행복

기존 선행연구들은 쾌락적 행복(hedonic well-being)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널리 활용해 왔다. 이에 본 연구 역시 Diener(1984)의 주관적 안녕 개념에 근거하여,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 차원을 반영하는 삶의 만족도를 행복의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복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응답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 상태를 0점, 매우 만족한 상태를 10점으로 하는 11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공공공간

공공공간이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는 공간의 수준(주택, 지역사회, 도시)에 따라 다양하지만(Stanley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개인이므로, 서울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공공간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공원 변수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공원현황 통계(2017)」에서 제공하는 자치구별 1인당 공원면적 총계를 활용하였다. 해당 통계의 공원면적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과 기타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 등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과 같은 생활권공원뿐 아니라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생태공원 등 주제공원이 포함된다. 또한 기타공원에는 강변공원, 마을마당 등 시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치구별 공원면적을 주민등록인구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공원면적(m^2)’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각 자치구 주민에게 제공되는 물리적 공원 자원의 상대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지역 도서관은 독서 기능에 그치지 않고 영화상영, 독서동아리, 토론회,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여가와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 기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2018년 이전에 개관한 도서관 가운데, 20세 이상 서울시민이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일반)을 포함하였다.⁶⁾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축한 자치구별 공공

6) 본 연구는 20세 이상 시민을 분석대상으로 하므로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였으며, 자치구 생활권 내 이용 가능성과 접근의 보편성을 고려하여 국회도서관·법원도서관 등 국립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면적 기준이 건물면적으로 제시되어 공공도서관(일

도서관의 연면적(m^2)을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의 총인구로 나누어,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면적(m^2) 변수로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은 공공체육시설을 통해 일상적인 운동, 경기,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대관하거나 방문하여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통계 관련 자료 가운데 시민 이용 가능성이 높고 생활체육 활동과 밀접한 시설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 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을 지역별로 취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별 공공체육시설의 부지면적(m^2)을 주민등록인구현황의 총인구로 나누어, 인구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m^2) 변수로 산출하였다.

3) 매개변수: 신뢰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요 분석변수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신뢰를 측정하는 대표적 방식은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사용되는 전반적 대인신뢰 문항으로, 이는 특정 대상이 아닌 타인 일반에 대한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를 포착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 역시 서울서베이(2017)에 수록된 일반적 신뢰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행복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가 여부, 가구총소득, 교육수준, 직업 유무, 건강인식, 안전인식, 종교유무, 정치성향, 사회적 지지망을 포함하였다(〈표 3〉 참조).

성별은 행복 연구에서 일관된 방향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행복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인구 사회학적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Helliwell & Putnam, 2004).

연령은 행복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어 온 핵심 인구 사회학적 변수로서, 개인의 삶의 단계와 경험 축적이 행복 수준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반)의 연면적 기준과 상이하므로, 측정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공공도서관(일반)의 연면적만을 도서관 공간자원 지표로 활용하였다.

(Blanchflower, 2021; López Ulloa et al., 2013).

혼인상태(배우자 유무)는 행복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Easterlin, 2003; Helliwell & Putnam, 2004; Myers & Diener, 1995).

주거와 경제적 자원 역시 행복의 주요 설명요인이다. 자가 소유 여부는 주거 안정성과 자산 보유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행복과 정(+)의 관련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황현정·김지원, 2023; Kuroki, 2013; Zhang et al., 2018), 소득은 기본적 욕구 충족과 삶의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서 행복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간주된다(박정인·박민근, 2017; 이민아·송리라, 2014; Veenhoven, 1991).

교육 또한 개인의 역량 확장과 삶의 기회 구조와 관련된 변수라는 점에서 포함하였으나, 행복과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반드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만큼 경험적 통제를 위한 변수로 활용하였다(Helliwell & Putnam, 2004; Inglehart & Klingemann, 2000).

노동부문은 직업 유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실업이 행복 수준을 유의하게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Di Tella et al., 2001; Frey & Stutzer, 2008; Helliwell & Putnam, 2004),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노동 변수를 포함하였다.⁷⁾

건강은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문제로 인해 사회활동이 방해받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활용하였으며, 건강과 행복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Caporale et al., 2009; Crowley & Walsh, 2024; Helliwell & Putnam, 2004).

안전은 도시 안전과 관련된 여러 영역 가운데 시민의 일상적 불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폭력범죄 인식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 범죄율이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조준택·박지선, 2016; Mahuteau & Zhu, 2016; Kuroki, 2013).

종교유무는 행복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계적 자원을 반영하는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종교는 개인에게 삶의 의미, 정서적 안정, 공동체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종교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Lim & Putnam, 2010; Villani et al., 2019).

7) 일반적으로 실업 변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측정하는 것이 엄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부와 학생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 표본의 약 31%를 차지하여 이를 제외하면 표본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응답자를 무직,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 뒤, 무직을 기준으로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직업 유무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배제하지 않고 취업 상태와 비교 범주 속에서 함께 다룬 Helliwell & Putnam(2004)의 접근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정치성향은 개인의 가치관, 사회인식, 제도 및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는 보수적 정치성향이 진보적 정치성향보다 높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될 수 있다는 논의가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관계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Napier & Jost, 2008; Stavrova & Luhmann, 2016).

사회적 지지망은 행복 연구에서 개인의 삶의 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관계자원으로 논의되어 왔다. 가족,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도구적 지지는 삶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완충 자원으로 기능하며,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Helliwell & Putnam, 2004; Siedlecki et al., 2014).

〈표 3〉 변수설명

변수명			측정	
종속 변수	행복		삶의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 - 매우 만족한다=10
독립 변수	공공 공간	인구 1인당 공원면적	자치구별 공원 면적(m^2)/ 자치구별 총인구수	
		인구 1인당 도서관 면적	자치구별 도서관 면적(m^2)/ 자치구별 총인구수	
		인구 1인당 체육시설 면적	자치구별 체육시설 면적(m^2)/ 자치구별 총인구수	
매개 변수	신뢰		일반적 신뢰	항상 조심해야 한다=1 ~ 항상 신뢰할 수 있다=4
통제 변수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		연속형 변수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미혼, 이혼, 별거, 사별)=0, 배우자 있음(기혼, 동거)=1	
	자가여부		미소유=0, 소유=1	
	가구총소득		50만 원 미만(=1) ~ 900만 원 이상(=1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0, 고졸 이하=1, 대졸 이하=2, 대학원 이상=3	
	직업유무		무직=0,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1	
	건강인식		항상 방해받음=1 ~ 전혀 방해받지 않음=5	
	안전인식		매우 심각함=1 ~ 전혀 심각하지 않음=5	
	종교유무		없음=0, 있음=1	
	정치성향		매우진보=0 ~ 매우보수=10	
	사회적 지지망		없음=0, 1개 영역=1, 2개 영역=2, 3개 영역=3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총 40,910명이며, 자치구별 표본 비중은 2.21%에서 4.93% 사이에 분포하여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 참조). 분석대상의 주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19,459명(47.57%), 여성 21,451명(52.43%)으로 나타나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하였다.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28,143명(68.79%)으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12,767명(31.2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거 특성을 나타내는 자가여부는 자가 소유자가 24,772명(60.55%)으로 미소유자 16,138명(39.45%)보다 많았다.

월평균 총가구소득⁸⁾은 ‘400만 원~600만 원 미만’이 36.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200만 원~400만 원 미만’(31.56%), ‘600만 원~800만 원 미만’(14.62%), ‘200만 원 미만’(12.05%), ‘800만 원 이상’(5.76%)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하가 21,429명(52.38%)으로 전체 표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어 고졸 이하 13,150명(32.14%), 중학교 이하 5,611명(13.7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은 720명(1.76%)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직업 유무 변수의 경우, ‘직업 없음’은 직업 분류상 ‘무직’으로 응답한 3,958명(9.67%)으로 구성하였고, ‘직업 있음’은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총 36,952명(90.33%)으로 분류하였다. 종교 유무의 경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2,079명(53.97%)으로,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18,831명(46.03%)보다 다소 많았다.

사회적 지지망 변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 수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3개 영역 모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133명(61.4%)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2개 영역 6,683명(16.34%), 없음 5,276명(12.90%), 1개 영역 3,818명(9.3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평균 49.16세(SD=16.11)로, 응답자는 19세부터 97세까지 분포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표본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인식 변수의 평균은 3.73점(SD=0.837)으로 나타났으며, 최솟값은 1점, 최댓값은 5점이었다. 또한 안전인식 변수의 평균은 2.47점(SD=1.06)으로, 동일하게 1점에서 5점의 범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 변수의 평균

8) 총가구소득은 원자료 및 분석에서 50만 원 단위로 활용하였으며, 인구 사회학적 특성표에서는 제시의 편의를 위해 200만 원 단위로 재분류하였다.

은 5.03점($SD=1.76$)으로 나타났으며, 최솟값은 0점, 최댓값은 10점이었다.

〈표 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0,910$)

변수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9,459	47.57
	여자	21,451	52.43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12,767	31.21
	배우자 있음	28,143	68.79
자가여부	미소유	16,138	39.45
	소유	24,772	60.55
가구총소득	200만 원 미만	4,930	12.05
	200만 원~400만 원 미만	12,912	31.56
	400만 원~600만 원 미만	14,734	36.02
	600만 원~800만 원 미만	5,979	14.62
	800만 원 이상	2,355	5.7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11	13.72
	고졸 이하	13,150	32.14
	대졸 이하	21,429	52.38
	대학원 이상	720	1.76
직업유무	무직	3,958	9.67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36,952	90.33
종교유무	없음	22,079	53.97
	있음	18,831	46.03
사회적 지지망	없음	5,276	12.90
	1개 영역	3,818	9.33
	2개 영역	6,683	16.34
	3개 영역	25,133	61.4
연령	Mean=49.16, $SD=16.11$, Min=19, Max=97		
건강인식	Mean=3.73, $SD=.837$, Min=1, Max=5		
안전인식	Mean=2.47, $SD=1.06$, Min=1, Max=5		
정치성향	Mean=5.03, $SD=1.76$, Min=0, Max=10		

2. 기술통계분석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주요 기술통계이다(〈표 5〉 참조). 우선, 전체 응답자들의 행복 평균은 7.14로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치구별 행복 평균은 종로구와 도봉구가 각각 7.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와 마포구가 7.36점, 양천구와 서초구가 7.32점, 중랑구 7.31점, 성동구 7.3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북구

7.26점, 성북구 7.25점, 관악구 7.24점, 강남구 7.20점, 강동구 7.13점, 송파구 7.10점, 중구 7.09점, 광진구 7.08점, 구로구와 은평구 7.06점, 용산구와 강서구 7.05점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노원구 6.96점, 금천구 6.95점, 동작구 6.91점, 서대문구 6.87점, 동대문구 6.48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자치구별 행복 평균은 6.48점에서 7.40점 사이에 분포하여 지역 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써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는 4점 척도 가운데 2.61점으로 중앙값보다 좀 더 높았다.

1인당 공원 면적은 자치구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가 7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북구 43.7㎡, 서초구 35.7㎡, 도봉구 29.1㎡, 은평구 2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대문구는 3.5㎡로 가장 낮았고, 양천구 6.1㎡, 송파구 6.6㎡, 강서구 7.1㎡, 구로구 7.2㎡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1인당 공원 면적은 3.5㎡에서 70.4㎡까지 분포하여, 서울시 자치구 간 공원 접근성과 녹지 자원 수준에 뚜렷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인구 1인당 도서관 면적은 평균 0.03㎡, 표준편차 0.02㎡로 나타난 반면, 인구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평균 1.34㎡, 표준편차 1.24㎡로 상대적으로 큰 변동 폭을 보였다. 이는 도서관 면적 변수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측정된 데 비해, 체육시설 면적 변수는 구민체육센터, 운동장, 체육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체육시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5〉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N	Mean	Std. Deviation	Minimum	Maximum
행복	40,910	7.14	1.61	0	10
신뢰	40,910	2.61	0.81	1	4
인구 1인당 공원 면적	40,910	16.76	13.37	3.50	70.40
인구 1인당 도서관 면적	40,910	0.03	0.02	0.01	0.12
인구 1인당 체육시설 면적	40,910	1.34	1.24	0.18	4.12

3. 상관분석 결과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2〉 참조).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행복은 주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과 대체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계수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공원면적, 도서관 면적,

체육시설 면적 등 공공공간·시설 변수는 행복과 매우 미약한 정적 상관을 보여, 이들 변수와 행복 간 단순 이변량 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복은 신뢰($r=.179$)와 상대적으로 더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댓값은 크지 않았다.

다음으로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절댓값 기준 0.6 이상인 상관은 공원면적과 공공도서관 면적 간 정적 상관($r=.612$), 연령과 학력 간 부적 상관($r=-.651$)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의 우려 기준으로 활용되는 0.7 이상의 상관계수는 관찰되지 않았다. 아울러 다중공선성 여부를 보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산출한 결과, 평균 VIF는 1.25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개별 변수의 VIF 역시 모두 2.3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추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공공공간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공공공간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신뢰가 어떠한 매개적 관련성을 갖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1986)의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공공공간 변수, 신뢰, 행복 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6>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Baron & Kenny(1986)의 첫 번째 단계인 Model 1은 공공공간을 측정하는 독립변수들이 행복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확인하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 공원 면적은 행복과 정적인 방향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공원과 같은 개방형 공공공간이 주민의 휴식, 정서적 안정, 생활환경의 쾌적성과 맞물려 행복 수준과 긍정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반면, 공공도서관 면적과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정적인 계수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물리적 면적 자체가 행복과 일관되게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Model 1에서는 공원 면적에 한해 제한적인 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Baron & Kenny(1986)의 두 번째 단계인 Model 2는 공공공간 변수가 매개변수인 신뢰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검토하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 공원 면적은 신뢰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공원과 같은 개방형 공공공간이 주민의 일상적 산책, 휴식, 가벼운 운동, 반복적 마주침과 관련되며, 이러한 비형식적 접촉 경험이 일반화된 신뢰 수준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공원은 특정 목적에 한정된 시설이라기보다 개방성과 접근성이 좋은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 느슨한 사회적 접촉과 신뢰 형성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공도서관 면적은 신뢰와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도서관의 물리적 면

적 확대가 반드시 일반적 대인신뢰의 증가와 연결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도서관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지만, 그 이용 방식은 독서, 학습, 자료 이용, 프로그램 참여 등 비교적 목적지향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조화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도서관의 물리적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간이 불특정 다수 간의 비형식적 상호작용이나 느슨한 사회적 접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도서관 면적이 큰 지역은 이용 수요, 행정적 공급,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요인과 결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체육시설이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는 있으나, 특정 운동 목적, 예약 및 프로그램 기반 이용, 이용자 집단의 분절성 등으로 인해 일반적 대인신뢰와 연결되는 방식이 공원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공공시설은 생활편의나 여가 기회와 관련될 수 있지만, 신뢰와의 관계에서는 공간의 개방성, 비목적적 체류 가능성, 반복적 마주침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셋째, Model 3은 공공공간을 측정하는 독립변수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신뢰와 행복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분석 결과, 신뢰는 행복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신뢰가 1단위 높을수록 행복수준은 평균적으로 0.368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뢰의 계수 크기는 다른 통제변수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큰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복이 경제적 자원이나 물질적 조건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와 같은 관계적·사회적 자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Model 4는 공공공간 관련 변수와 매개변수인 신뢰를 동시에 투입하여, 공공공간과 행복 간의 관계가 신뢰를 함께 고려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최종 단계이다. 분석 결과, 1인당 공원 면적과 신뢰는 모두 행복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다만 신뢰를 통한 매개적 관련성은 공공공간 변수 중 ‘인구 1인당 공원 면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 면적의 계수는 Model 1에서 0.0044였으나, 신뢰를 포함한 Model 4에서는 0.0034로 감소하였다. 이는 공원 면적과 행복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만

9) 도서관 및 체육시설 변수의 측정타당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서관의 경우 인구 1천 명당 좌석 수, 이용자 수,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투입한 결과, 프로그램 수는 행복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그러나 신뢰 모형에서는 음의 방향을 보였고, 신뢰를 포함한 행복 모형에서도 계수 값이 감소하지 않아 신뢰를 통한 매개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일반적 대인신뢰 형성보다는 문화·교육·여가 기회의 제공을 통해 행복과 직접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프로그램 수가 많은 지역이 주민 수요가 높거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큰 지역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결과의 인과적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공체육시설은 자치구별 이용자 수 및 프로그램 수가 일관된 기준으로 제공되지 않아 운영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나타나기보다는, 신뢰라는 사회적 관계 요인과 함께 설명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공간 전반에서 신뢰를 통한 매개경로가 일관되게 확인되었다기보다는, 공원 면적에 한해 신뢰를 경유한 제한적인 간접 관련성이 관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가설은 공원 면적 변수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각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공원 면적이 행복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인과적 의미보다는, 공원 면적, 신뢰, 행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신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⁰⁾

한편, 통제변수와 행복 간의 관계를 최종모형인 Model 4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조건, 주관적 생활환경 요인들이 행복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은 행복수준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자가를 보유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총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 역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노동시장 지위와 관련해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환경 및 사회적 관계 요인 역시 행복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폭력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망이 있는 경우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의 존재가 행복과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10) 추가적으로 자치구 임의절편을 포함한 다수준모형을 추정한 결과, 무조건모형의 ICC는 약 1.56%로 자치구 간 차이의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LR 검정은 유의하였으나(chibar2(01)=519.35, $p<.001$), 최종모형에서 공원($\beta=0.0036$, $p=.145$), 도서관 면적($\beta=0.2431$, $p=.859$), 체육시설 면적($\beta=0.0200$, $p=.466$)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신뢰만 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beta=0.3688$, $p<.001$). 이에 본문은 자치구 수준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한 OLS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되, 다수준모형에서 공공공간 변수의 직접효과가 안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해석을 신중하게 서술하였다.

〈표 6〉 행복 회귀분석 결과

	Model 1 행복	Model 2 신뢰	Model 3 행복	Model 4 행복
인구 1인당 공원 면적	0.0044** (0.0020)	0.0026*** (0.0007)		0.0034* (0.0020)
인구 1인당 도서관 면적	0.0334 (0.8028)	-0.9085** (0.3280)		0.3670 (0.8047)
인구 1인당 체육시설 면적	0.0157 (0.0228)	-0.0137 (0.0097)		0.0208 (0.0238)
신뢰			0.3683*** (0.0347)	0.3673*** (0.0349)
성별(여성)	0.0386 (0.0260)	0.0146 (0.0116)	0.0336 (0.0254)	0.0332 (0.0254)
연령	-0.0083*** (0.0013)	-0.0005 (0.0008)	-0.0081*** (0.0013)	-0.0081*** (0.0013)
배우자유무	0.3204*** (0.0235)	0.0858*** (0.0196)	0.2893*** (0.0254)	0.2889*** (0.0253)
자가여부	0.2824*** (0.0402)	0.0568*** (0.0194)	0.2680*** (0.0383)	0.2615*** (0.0381)
가구총소득	0.0579*** (0.0065)	0.0078** (0.0034)	0.0547*** (0.0069)	0.0550*** (0.0068)
교육수준	0.2478*** (0.0284)	0.0261* (0.0130)	0.2392*** (0.0284)	0.2382*** (0.0283)
직업유무	0.1923*** (0.0399)	-0.0069 (0.0272)	0.1945*** (0.0387)	0.1948*** (0.0377)
건강인식	0.0938** (0.0382)	0.0473** (0.0182)	0.0761** (0.0352)	0.0764** (0.0361)
안전인식	0.1030*** (0.0202)	0.0689*** (0.0196)	0.0784*** (0.0207)	0.0777*** (0.0206)
종교유무	0.0481* (0.0264)	0.0425*** (0.0119)	0.0277 (0.0273)	0.0325 (0.0267)
정치성향	0.0074 (0.0141)	-0.0022 (0.0069)	0.0067 (0.0131)	0.0082 (0.0133)
사회적 지지망	0.0851** (0.0345)	-0.1809*** (0.0199)	0.1527*** (0.0318)	0.1515*** (0.0317)
상수	5.1261*** (0.2631)	2.4850*** (0.1314)	4.3076*** (0.2538)	4.2134*** (0.2607)
F	52.57***	19.93***	48.97***	57.82***
R ²	0.1096	0.0761	0.1400	0.1412
N	40,910	40,910	40,910	40,910

주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주2: 모든 모형에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옵션을 사용하였음

주3: *p<0.1, **p<0.05, ***p<0.01

5. 부트스트랩을 통한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공공공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5,000회의 bootstrap 재표집을 실시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추정하였다(〈표 7〉 참조). 아울러 자료가 자치구 단위의 군집구조를 갖는 점을 고려하여 자치구 코드 기준의 군집 부트스트랩을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공원 면적이 신뢰를 거쳐 행복과 관련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원 면적의 간접효과는 정(+)의 방향을 보였으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신뢰를 통한 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는 공원 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신뢰 수준이 높고, 이러한 신뢰가 다시 행복수준과 정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원 면적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신뢰는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도서관 면적과 체육시설 면적의 경우 신뢰를 통한 간접적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도서관 면적의 간접효과는 음(-)의 방향을 보였으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유의한 매개경로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체육시설 면적 역시 신뢰를 경유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도서관 및 체육시설 면적과 행복 간의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관계가 일반적 대인신뢰를 매개로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각 공공공간 변수의 직접효과와 총효과 역시 부트스트랩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공간의 양적 규모가 행복수준과 직접적으로 강하게 연결되보다는, 특히 공원과 같은 개방적 공공공간의 경우 신뢰 형성과 같은 사회적 관계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복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분석은 자치구 수준의 군집구조를 고려한 부트스트랩 결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공공공간의 인과적 효과보다는 신뢰를 통한 관련 경로를 확인한 것으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7〉 공공공간의 간접효과 값 분석결과

	변수명	Observed Coef.	Bootstrap Std. Err.	P> z	[95% Conf. Interval]	
간접효과	공원 면적	0.0010	0.0004	2.59***	0.0002	0.0017
	도서관 면적	-0.3337	0.1913	-1.74*	-0.7086	0.0413
	체육시설 면적	-0.0050	0.0043	-1.16	-0.0136	0.0035

직접효과	공원 면적	0.0034	0.0028	1.23	-0.0020	0.0088
	도서관 면적	0.3670	1.3773	0.27	-2.3323	3.0664
	체육시설 면적	0.0208	0.0330	0.63	-0.0439	0.0855
총효과	공원 면적	0.0044	0.0028	1.59	-0.0010	0.0098
	도서관 면적	0.0334	1.3582	0.02	-2.6286	2.6953
	체육시설 면적	0.0157	0.0313	0.5	-0.0457	0.0772

주: * $p<0.1$, ** $p<0.05$, ***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도시 거주 시민의 행복이 과연 개인의 소득이나 인구 사회학적 특성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삶의 질은 여가, 이동, 환경과 같은 일상적 도시 경험의 조건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복 연구는 주로 소득, 건강 등의 설명변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도시의 물리적·공간적 조건, 즉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공공공간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효과는 단순히 시설의 물리적 존재나 접근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혹은 그러한 공간이 시민들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통해 발현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서울서베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 40,910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공공공간 변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시설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 1인당 공원 면적, 인구 1인당 도서관 면적, 인구 1인당 체육시설 면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공공공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신뢰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회귀분석 4단계를 적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부트스트랩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변수와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원 면적은 행복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인 반면, 도서관 면적과 체육시설 면적은 정(+)의 방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공공공간의 물리적 규모가 행복수준과 일관되게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원과 같은 개방형

공공공간의 경우 주민의 휴식, 정서적 안정, 생활환경의 쾌적성과 맞물려 행복수준과 긍정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민의 행복이 사적 자원이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시환경의 질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모든 공공시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공간의 개방성, 접근성, 일상적 이용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뢰는 행복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그 계수 크기는 다른 통제변수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이 경제적 자원이나 물질적 조건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와 같은 관계적·사회적 자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도시의 행복은 양호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와 신뢰의 수준이 함께 고려될 때 더욱 풍부하게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신뢰를 통한 매개적 관련성은 공공공간 변수 가운데 공원 면적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공원 면적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뢰를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원 면적이 행복수준과 독립적으로 강하게 연결된다기보다는, 신뢰라는 사회적 관계 요인과 결부될 때 행복과의 간접적 관련성이 관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원은 개방적이고 비배제적인 생활 공간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치고 공존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이러한 경험이 일반화된 신뢰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원 면적과 행복 간의 관계는 신뢰를 경유한 제한적인 간접 관련 경로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공간과 행복 간의 관계가 단일한 방식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원은 신뢰와 결부된 간접적 관련 경로를 통해 행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도서관과 체육시설은 신뢰보다는 기능적 편익, 여가 기회, 생활만족과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 행복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양적 규모가 행복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일반화하기보다는, 공간 유형별 특성과 이용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분석은 자치구 수준의 군집구조를 고려한 부트스트랩 결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를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기보다는 공공공간, 신뢰, 행복 간의 통계적 관련 경로를 확인한 결과로 신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공공공간 정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시민의 일상적 이용 경험과 사회적 관계 형성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원 면적은 신뢰를 경유하여 행복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녹지공간은 단순한 휴

식·경관 자원이 아니라 시민 간 느슨한 접촉과 지역사회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생활권 기반 공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원 정책은 면적 확대뿐 아니라 접근성, 체류 가능성, 이용 편의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거지 인근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포켓파크 조성, 보행로와 녹지를 연결한 생활권 산책 네트워크 구축, 벤치·그늘·조명 등 기본 편의시설 확충, 노년층과 아동도 이용하기 쉬운 무장애 동선 설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공공공간이 신뢰와 관련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조성뿐 아니라 운영 방식도 중요하다. 공원 걷기 모임, 주민 정원 가꾸기,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소규모 문화행사 등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마주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생활형 프로그램은 공공공간을 단순한 이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관계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과 체육시설의 경우 본 연구에서 신뢰를 통한 매개경로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들 시설 역시 학습, 문화, 건강, 여가 기회와 관련된 중요한 생활 인프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독서 모임·시민강좌, 체육시설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주민 간 교류가 가능한 운영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 간 공공공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개입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공원 면적, 도서관 및 체육시설 접근성, 인구밀도, 고령인구 비율, 저소득층 분포, 1인 가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공간 취약지역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전체 면적이 부족한 지역뿐 아니라, 인구 대비 접근 가능한 생활권 공공공간이 부족한 지역, 이동 취약계층이 공공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신뢰나 사회적 고립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공원 접근성이 낮고 고령인구 또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는 생활권 녹지, 쉼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우선 배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재원 배분에서도 이러한 우선순위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공공공간 정책은 대규모 시설 조성 중심의 획일적 배분보다, 지역의 결핍 수준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형평성 기반 배분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활권 녹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신규 조성이나 유휴공간 재생을 우선 지원하고, 이미 시설은 존재하지만, 이용률이나 프로그램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운영비, 유지관리비, 주민참여 프로그램 예산을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는 공공공간 정책이 단순한 인프라 공급을 넘어, 실제 주민의 이용 경험과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공간 정책은 도시계획, 복지, 건강, 문화, 자치행정 정책과 연계될 때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공원, 보행로, 자전거도로, 도서관, 체육시설을 개별 시설로

관리하기보다, 주민의 일상적 이동과 활동을 중심으로 연결된 생활권 공공공간 네트워크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공간의 성과를 단순히 조성 면적이나 시설 수로만 평가하기보다, 주민의 이용 빈도, 접근성, 만족도, 사회적 교류 경험, 지역 신뢰 수준 등을 함께 살펴보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공공공간이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분석수준의 이질성이다.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서울서베이 응답자료와 자치구 수준의 공공공간·시설 변수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위계적 자료구조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구 단위 군집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하였으나, 관찰되지 않은 자치구 수준 이질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자치구 임의 절편을 포함한 다수준모형을 보조적으로 추정하여 위계적 자료구조의 영향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행복 수준에서 자치구 간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었으나, 자치구 수준의 이질성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웠다. 또한 다수준모형에서는 공공공간 및 관련 시설 변수의 직접효과가 안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반면, 신뢰는 행복과 일관되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구 단위 군집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한 OLS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제시하되, 공공공간 및 관련 시설의 직접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석하였다.

둘째, 데이터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2017)의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 관계를 특정 시점에서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나 인과적 선후관계를 엄밀히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공간, 신뢰, 행복 간의 관계를 보다 동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수 측정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공간 및 관련 시설을 공원면적, 공공도서관 면적, 공공체육시설 면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는 공공공간과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자주 활용되어 온 지표이며, 서울시 자치구 단위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공간은 보행환경, 광장, 거리, 커뮤니티시설, 생활권 접근성, 공간의 질적 수준, 실제 이용행태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본 연구의 세 지표가 공공공간의 전체적 특성을 충분히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공간 전반의 효과라기보다, 자치구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일부 공공공간·시설 지표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분석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의 접근성, 질적 수준, 이용 빈도나 이용 경험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분석 결과의 해석에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Baron &

Kenny(1986)의 4단계 절차를 활용하였으나, 이 접근은 개별 회귀 경로의 단계적 유의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검정력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도서관 및 체육시설 면적에서 신뢰를 통한 매개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실제 간접 관련성의 부재를 의미하는지, 또는 분석 절차의 검정력 한계와 관련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완적으로 5,000회 반복 부트스트랩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인과적 효과라기보다 변수 간 간접적 관련성을 확인한 것으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명철·최상옥. (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 고은정. (2018).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다양성, 사회자본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도시연구」, 19(2): 73-86.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7).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서울: 집문당.
- 김성아·강예은. (2025).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형·남태우. (2021). 서울시민의 문화 환경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일반 신뢰와 공적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도시행정학보」, 34(4): 1-22.
- 문진영. (2012).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1): 53-77.
- 박정인·박민근. (2017). 삶의 만족과 경제적 수입: Easterlin의 역설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9(3): 69-88.
- 서울특별시. (2018). 「2018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2017년 기준)」.
- 송현성. (2025). 현대 도시사회에서 지역공동체 활동과 행복 간 관계-일반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주거환경」, 23(1): 153-170.
- 안윤정. (2014).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이민아·송리라. (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37(4): 89-114.
- 이승준·김지원·구교준. (2021). GDP를 넘어: 국민후생의 측정지표로서 25개 대안 GDP 비교·분석. 「조사연구」, 22(2): 33-69.
- 이영빈·정창무. (2013). 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77-88.
- 이우민·서승연·이경환. (2016). 지역주민들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351~360.

- 이학식. (2012).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서울: 집현재.
- 정석. (2016). 「도시의 발전: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 인문학」. 서울: 메디치미디어.
- 정은주·나주몽·정봉현. (2016). 공공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9(2): 51-73.
- 정현·전희정. (2018). 근린환경과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57-80.
- 조준택·박지선. (2016). 범죄율과 범죄두려움이 서울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17(4): 131-144.
- 조태연·안양규·김용남·채정호·권석만·박지원·박재갑. (2013). 「행복의 인문학」. 서울: 석탑출판.
- 최영준·한은아·김아래미·김성아·임소현·이한빈·최유리. (2023).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 서울: 재단법인 청년재단.
- 황현정·김지원. (2023). 청년세대의 소득과 행복: 집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61(1): 291-32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gardner, S., & Crothers, M. (2009). *긍정심리학* (안신호·이진환·신현정·홍창희·정영숙·이재식·서수균·김비아 역). 시그마프레스.
- Benita, F., Bansal, G., & Tunçer, B. (2019). Public Spaces and Happiness: Evidence from a Large-scale Field Experiment. *Health and Place*, 56: 9-18.
- Blanchflower, D. G. (2021). Is happiness U-shaped everywhere? Ag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145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4(2): 575-624.
- Caporale, G. M., Georgellis, Y., Tsitsianis, N., & Yin, Y. P. (2009). Income and happiness across Europe: Do reference values matte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0(1): 42-51.
- Chekola, M. G. (1975). *The concept of happin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7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 4609A. (University Microfilms No. 7500655).
- Crowley, F., & Walsh, E. (2024). Tolerance,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 multilevel model from transition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Review of Social Economy*, 82(1): 23-50.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i Tella, R., MacCulloch, R. J., & Oswald, A. J. (2001).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335-341.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Easterlin, R. A.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19): 11176-11183.

Frey, B. S., & Stutzer, A. (2008). *경제학, 행복을 말하다* (김민주·정나영 역). 도서출판 예문. (원서출판 2002).

Gehl, J. (2003). *삶이 있는 도시 디자인* (김진우·이성미·한민정 역). 푸른솔. (원서출판 1971).

Gehl, J., & Svarre, B. (2014). *인간을 위한 도시 만들기* (윤태경·이원제 역). 비즈앤비즈. (원서출판 2013).

Goodsell, C. T. (2003). The concept of public space and its democratic manifestation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3(4): 361-383.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Helliwell, J. F., & Huang, H.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595-619.

Helliwell, J. F., Huang, H., Wang, S., & Norton, M. (2020). *Social environments for world happiness*. World happiness report, 2020(1), 13-45.

Helliwell, J. F., Huang, H., Wang, S., & Norton, M. (2021). *World happiness, trust and deaths under COVID-19*. World happiness report, 2021, 13-57.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2012). *World Happiness Report 2012*.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Hong, J., Lee, D., & Ham, J. (2026). Examining the roles of perceived neighbourhood environments in shaping social capital and the happiness of older adults in a super-aged Asian City. *Cities*, 168, 106437.

Hsee, C. K., Hastie, R., & Chen, J. (2008). Hedonomics: Bridging decision research with happiness research.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3): 224-243.

Inglehart, R., & Klingemann, H. D.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 Diener & E. Suh (Eds.),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pp. 165-183). Cambridge, MA: MIT Press.

Jacobs, J.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역). 그린비. (원서출판 1961).

Jennings, V., & Bamkole, O.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hesion and Urban Green Space: An Avenue for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3): 452.

- Kim, D., & Jin, J. (2018). Does happiness data say urban parks are worth it?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78: 1-11.
- Kim, H., & Yang, S. (2017). Neighborhood Walking and Social Capital: The Correlation between Walking Experience and Individual Perception of Social Capital. *Sustainability*, 9(5): 680.
- Kuroki, M. (2013). Crime victimiz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happiness dat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3): 783-794.
- Lim, C., & Putnam, R. D. (2010). Religion, social networks, and life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6): 914-933.
- López Ulloa, B. F., Møller, V., & Sousa-Poza, A. (2013). How does subjective well-being evolve with age?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6(3): 227-246.
- Maas, J., van Dillen, S.M.E., Verheij, R.A., & Groenewegen, P.P. (2009). Social contacts as a possible mechanism behind the relation between green space and health. *Health Place*, 15(2): 586-595.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1): 83.
- Mahuteau, S., & Zhu, R. (2016). Crime victimis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Panel evidence from Australia. *Health economics*, 25(11): 1448-1463.
- Mehdizadeh, M., Kroesen, M., & De Vos, J. (2025). Perceived accessibility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activity participation?.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146, 104848.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Napier, J. L., & Jost, J. T. (2008). Why are conservatives happier than liberals? *Psychological Science*, 19(6): 565-572.
- Nemeth, J., & Schmidt, S. (2011).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 Modeling and measuring publicnes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38(1): 5-23.
- Nicolás-Martínez, C., Pérez-Cárceles, M. C., Riquelme-Perea, P. J., & Verde-Martín, C. M. (2024). Are Cities Decisive for Life Satisfact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European Population: CN Martínez et al.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4(3): 1025-1051.
- Nowland, R., Necka, E. A., & Cacioppo, J. T. (2018). Loneliness and social internet use: pathways to reconnection in a digital world?.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3(1): 70-87.
- Nussbaum, M.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 Feminist Economics*, 9(2-3): 33-59.
- OECD. (2025). *Social Connections and Lonelines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df2d6a0-en>.
- Oishi, S., Graham, J., Kesebir, S., & Galinha, I. C. (2013). Concepts of happiness across time and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5): 559-577.
- Patino, J. E., Martinez, L., Valencia, I., & Duque, J. C. (2023). Happiness, life satisfaction, and the greenness of urban surrounding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37: 104811.
- Project for Public Spaces(PPS). (2008). *좋은 장소를 만드는 방법* (김봉원 역). 태림문화사. (원서출판 2000).
- Ratanawichit, P., Arifwido, S. D., & Anambutr, R. (2025). Neighbourhood Walkability, Recreational Walking,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hysical Activity and Well-Being in Bangkok, Thailand. *Urban Science*, 9(5): 154.
- Rogers, S. H., Halstead, J. M., Gardner, K. H., & Carlson, C. H. (2011). Examining Walkability and Social Capital as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at the Municipal and Neighborhood Scales.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6(2): 201-213.
- Samavati, S., & Veenhoven, R. (2024). Happiness in urban environments: what we know and don't know yet.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39(3): 1649-1707.
- Schildhammer, G. (2014). *행복* (최성욱 역). 이론과 실천. (원서출판 2009).
- Siedlecki, K. L., Salthouse, T. A., Oishi, S., & Jeswani, S.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a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2): 561-576.
- Stanley, B. W., Stark, B. L., Johnston, K. L., & Smith, M. E. (2012). Urban Open Space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Transdisciplinary Typology and Analysis. *Urban Geography*, 33(8): 1089-1117.
- Stavrova, O., & Luhmann, M. (2016). Are conservatives happier than liberals? Not always and not everywhe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63: 29-35.
- Swierad, E.M., & Huang T.T.K. (2018). An Exploration of Psychosocial Pathways of Parks' Effects on Health: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8): 1693.
- Tatarkiewicz, W. (1966). Happiness and Time. *Philosophical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27(1): 1-10.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Veenhoven, R. (2001).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Not Quite the Same* (Translated in English). In G. DeGirolamo (Ed.), *Salute e qualita della vita* (Published in Italian). (pp. 67-95), Torino, Italy: Centro Scientifico Editore.

- Villani, D., Sorgente, A., Iannello, P., & Antonietti, A. (2019). The role of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in subjective well-being of individuals with different religious status. *Frontiers in psychology*, 10: 1525.
- Whyte, W. H.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Washington DC: The Conservation Foundation.
- Zhang, F., Zhang, C., & Hudson, J. (2018). Housing conditions and life satisfaction in urban China. *Cities*, 81: 35-44.
- Zhao, X., Lynch Jr, J. G., & Chen, Q. (2010). Reconsidering Baron and Kenny: Myths and truths about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197-206.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국내 첫 종합대책.”, 검색일: 2024.10.21.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32028833>

〈부록 1〉 서울특별시 지역별 표본 수

(명, %)

지역	전체 표본		남성		여성	
강남구	2,016명	4.93%	933명	46.28%	1,083명	53.72%
노원구	2,006명	4.90%	936명	46.66%	1,070명	53.34%
관악구	2,001명	4.89%	990명	49.48%	1,011명	50.52%
강서구	1,990명	4.86%	933명	46.88%	1,057명	53.12%
송파구	1,950명	4.77%	924명	47.38%	1,026명	52.62%
은평구	1,895명	4.63%	901명	47.55%	994명	52.45%
강동구	1,825명	4.46%	879명	48.16%	946명	51.84%
구로구	1,815명	4.44%	857명	47.22%	958명	52.78%
양천구	1,728명	4.22%	813명	47.05%	915명	52.95%
마포구	1,707명	4.17%	819명	47.98%	888명	52.02%
종랑구	1,699명	4.15%	806명	47.44%	893명	52.56%
성북구	1,672명	4.09%	785명	46.95%	887명	53.05%
서초구	1,655명	4.05%	808명	48.82%	847명	51.18%
도봉구	1,637명	4.00%	781명	47.71%	856명	52.29%
동작구	1,591명	3.89%	739명	46.45%	852명	53.55%
서대문구	1,579명	3.86%	752명	47.63%	827명	52.37%
영등포구	1,560명	3.81%	746명	47.82%	814명	52.18%
광진구	1,534명	3.75%	732명	47.72%	802명	52.28%
강북구	1,517명	3.71%	695명	45.81%	822명	54.19%
금천구	1,459명	3.57%	683명	46.81%	776명	53.19%
동대문구	1,450명	3.54%	691명	47.66%	759명	52.34%
성동구	1,434명	3.51%	678명	47.28%	756명	52.72%
용산구	1,229명	3.00%	620명	50.45%	609명	49.55%
종로구	1,056명	2.58%	502명	47.54%	554명	52.46%
중구	905명	2.21%	456명	50.39%	449명	49.61%
총계	40,910명	100%	19,459명	47.57%	21,451명	52.43%

주: 지역별 전체 표본이 많은 순으로 나열함

〈부록 2〉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행복	1																
2	공원면적	.043***	1															
3	도서관 면적	.023***	.612***	1														
4	체육시설 면적	.008	-.051***	-.078***	1													
5	신뢰	.179***	.033***	.000	-.024***	1												
6	성별	-.018***	.000	.001	.000	.005	1											
7	연령	-.167***	-.006	-.020***	.042***	.010**	.011**	1										
8	배우자 유무	.091***	.018***	.019***	-.019***	.034***	-.078***	.288***	1									
9	자기여부	.087***	.026***	-.003	.077***	.040***	-.004	.227***	.082***	1								
10	가구 총소득	.251***	-.002	.016***	-.001	.025***	-.046***	-.287***	.112***	.167***	1							
11	교육수준	.227***	.021***	.024***	-.045***	.009*	-.157**	-.651***	-.050***	-.108***	.403***	1						
12	직업유무	.128***	.005	.023***	-.027***	.007	.161***	-.329***	.036***	-.064***	.217***	.272***	1					
13	건강인식	.076***	-.018***	-.026***	.033***	.037***	-.047***	-.105***	.002	-.015***	.047***	.110***	.065***	1				
14	안전인식	.038***	.009*	.008*	.021***	.112***	.004	.054***	-.019***	.013***	-.065***	-.060***	-.015***	-.041***	1			
15	종교유무	.000	-.034***	.006	-.024***	.023***	.072***	.129***	.050***	.045***	-.009*	-.060***	-.027***	-.026***	-.031***	1		
16	정치성향	-.060***	-.022***	-.003	-.050***	-.001	-.012**	.301***	.070***	.062***	-.120***	-.231***	-.124***	-.074***	.011**	.053***	1	
17	사회적 지지망	.101***	.020***	.003	-.001	-.236***	-.022***	-.089***	.074***	.008	.134***	.120***	.045***	.045***	-.120***	.001	-.047**	1

주: *p<0.1, **p<0.05, ***p<0.01

ABSTRACT

Happiness and Urban Public Spaces: The Mediating Role of Trust

Jiwon Kim

Quality of urban life cannot be explained solely by housing and mobility; it is also shaped by the spaces citizens share and the social relations formed within them. In the context of deepening urbanization and individualization, public spaces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social infrastructure that facilitates repeated encounters, interaction, and community trus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paces and the happiness of urban resi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trust.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2017 Seoul Survey to measure per capita public space in Seoul by park area, library area, and public sports facility area. The results show that park area per capita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happiness, and that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trust is observed only in this relationship. This suggests that open public spaces, where everyday activities such as walking, resting, and leisure can occur with relatively few restrictions, may foster social contact and trust, thereby indirectly contributing to happi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space policy should move beyo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facilities and consider design features such as openness, accessibility, usage patterns, and social relations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public spaces.

【Keywords: urban life, happiness, public spaces, trust】